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송곳 질의’ 만전

남구의회 제231회 제2차 정례회... 내년 예산안 등 심사



2014년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31회 제2차 정례회가 내달 18일까지 열린다.

남구의회(의장 이호승)는 2014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3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20일부터 열고 있다. 남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강영)는 지난 13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내달 18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11월21일부터 11월28일까지 8일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회는 개회 첫날인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3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14년도 중기 재정계획을 보고 받고 의원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또한 회기 중 본회의장에서 남구청장의 시정연설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2015년도 예산안 확정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구정에서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는 등 2014년 한해의 의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23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안건은 다음과 같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내년도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기금 운용의 투명성 유지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 변동액 조정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의 변동사항 정리를 위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7대 남구의회 의원에게 대한 의정비등 지급기준액이 부산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됨에 따라 우리구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금액을 결정 조정코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 구매촉진 협조 요청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한국산업기술원 탄소경영실-979(2014. 7. 1.)호에 따라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3019(2011. 11. 9.) 녹색제품 구매촉진 표준조례(안) 중 미개정 부분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2012. 12.)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전통시장 명칭 변경 및 불필요한 규제 조항 삭제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 제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표준된 자활사업단 매출적립금,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 미사용액 등을 기초생활보장제정(기금)으로 편입함에 따라 수입·지출계획을 변경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기초생활보장제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수행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13. 6. 21.) 시행되었으나 미 반영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련법령 인용문구를 수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감면제 적용을 위한 조항을 신설코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

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개정을 개정하고 부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및 가격단일화 추진에 따른 조정 내용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2012. 12.)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금연지지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지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단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지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6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 청취의 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6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수행하여 의견을 듣고자 함.

■남구의회 의원 인터뷰 ⑤ 이 강 영 운영위원장

“주민 목소리 담은 ‘남구판 PD수첩’ 만듭니다”

지난달 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이색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연단에 올라 준비한 원고를 집행부와 동료의원들을 향해 낭독하는 게 예사 풍경인데 이날은 ‘고발성’ 동영상 한 편이 상영됐다. 부산국제금융센터 완공으로 문현금융단지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교통 체계가 맞지 않아 문현동 주민들에겐 금융단지지만 세상 이야기라는 주민 인터뷰와 그 현장을 담았다.

이 ‘남구판 PD수첩’을 제작·연출한 주인공이 이강영 운영위원장이다. “초선인 제가 수 십년 행정의 달인인 구청 간부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길은 주민들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 외에 없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추속편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부산 지역 산악회 가운데 ‘GP산악회’라는 모임이 있다. 한 때 회원수 2000명이 넘어 단일 지역 산악회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GP의 ‘G’는 ‘강녕’의 영어 앞 글자에서 따왔다. ‘강녕이’는 이강영 위원장의 어릴 적 별명으로 지난 2006년 이 위원장이 자신의 별명을 따 결성했다. 산악회 원년 멤버들과의 연인도 흥미롭다. 그가 우연히 취미로 마이크를 잡은 인터넷 음악방송의 열혈 팬들이다. 남들이 인터넷에서 라디오 DJ를 흉내내면 ‘고상’하게 진행할 때 그는 갑작한 경성도 사투리로 인터넷 방송을 펼쳤다. 매끄럽진 않아도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이런 DJ는 난생 처음 본다”는 일소문이 퍼지면서 회원들이 폭주했고 만남은 지금까지 이어지



이강영 운영위원장이 문현동과 전포동의 경계 지점 도로에 앉아 인도가 끊긴 구간을 설명하고 있다. 인각사 벽화마을 200m 구간은 수년째 인도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고 있다.

이렇듯 가식 없고 앞뒤 재지 않는 소탈함과 추진력으로 이 위원장 주위로 늘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 위원장은 “음악방송 진행과 산악회 운영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방법을 일깨워줬다”고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문현동의 주거환경 개선을 꼽았다.

“문현금융단지 내 금융 인력들이 식사나 술자리로 서면이나 범일동으로 가지 가까운 문현동으로는 잘 오질 않습니다. 지역이 낙후됐기 때문이다. 주거 환경을 바꾸지 않고는 문현동의 미래도 없습니다.”

회원 2000명 산악회 만든 탁월한 친화력과 강한 추진력

“문현동 주거 환경 개선 절실... 계속 공론화 시켜 꼭 관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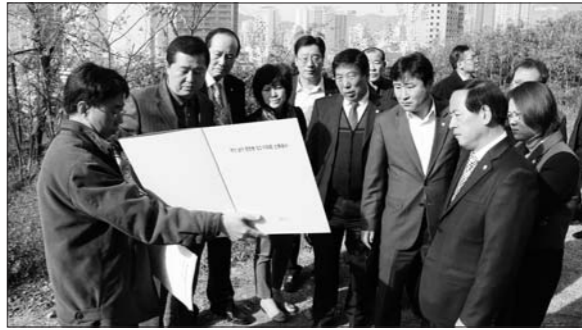
문현1동의 옥천암 언덕바지에서 5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줄곧 문현동을 지킨 토박이 신인 정치인이다. 2011년 말 합천 이씨 종친회에서 우연히 만난 이정환 당시 민주당중앙 후보를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남로 달라지는 다 동네와 달리 문현동은 자신이 태어날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문현동을 바꾸고 싶다는 게 남구의회 입성 이유라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가장

산시와 구청의 화력 지원 없이는 다소 벅찬 영역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법과 행정에도 융통성이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공감대를 환기하고 공론화하다 보면 언젠가는 해결될 거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탁월한 친화력과 거침없는 언변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 마는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이 위원장의 4년 후 성적표가 자못 기대된다.



남구의회 총무위원회의 대동굴 문화센터 건립 현장 방문 모습(사진 왼쪽)과 주민복지도시위원회의 문현동 사방설비지구 인근 건축 예정지 현장 방문 모습.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남구의회 총무위원회와 주민복지도시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3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지 확인 활동을 펼쳤다.

총무위원회(위원장 박재범)는 남구 UN평화문화특구 특화사업의 일환인 6·25 참전 UN군 활동기념 조형물 설치현장, UN참전 기념거리 조성현장을 둘러보고, 대동굴 문화센터 건립지, 오륙도 스카이 위크와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일원 및 국민

체육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추진 경과 및 애로사항, 향후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의원들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사업(시설)현황과 관련한 질의를 했고, 향후 발전방안과 효율적인 활용책 및 시설 안전문제 등에 대해서도 참석 관계자들과 토의를 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유장근)도 문현동 561·5번지 인근 사방

설비지구 인근 건축 예정지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옥상 내 도시옥상텃밭 조성 사업지, 용호동 삼성시장 일원 배수 펌프장을 차례로 현지 확인했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현황을 듣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결 노력과 침수피해로 두 번 다시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강영)에서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21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서병수 시장 “남구의회 건의 적극 반영”

지난 5일 남구의회 의원 감담회

이호승 의장을 비롯한 남구의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5일 남구의회를 방문한 서병수 부산광역시장과 감담회를 가졌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시장과 남구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현안사항과 주민불편 사항 해결을 위한 건의를 했다. 이강영 의원은 문현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생활환경 개선을 유장근 의원은 남부하수처리장 주변 악취해결을 주문했다. 조상

진 의원은 구 남부경찰서 건물을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 할 것을 운명 의 의원은 문현동 동천강 수질개선을 요구했으며 송상일 의원은 감만동 동천초등학교 진입도로 조속개설과 폐·공가 철거 사업 확대,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의 세대당 지원금액 확대·재개발 지역과 무허가건축물을 사업대상에도 포함해 줄 것을 건 의했다.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은 서 시장은 “남구의회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시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승 의장을 비롯한 남구의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5일 남구의회를 방문한 서병수 부산시장과 합담의 자리를 가졌다.



남구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반기 어린이 의회교실을 열었다. 아래 사진은 어린이 의회교실에서 강연한 남구의원들.



유장근 의원

박미순 의원

송상일 의원

이강영 의원

초등생 ‘스마트폰 중독 예방’ 조례안 체험

용호·용당·문현초 227명 참여

남구의회(의장 이호승)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용호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용당·문현 초등학교 학생 227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어린이의회교실을 열었다. 어린이 의회 교실에 참석한 학생들은 최근 초등학생도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스마트폰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안심 알라미’ 서비스용 스마트폰에도 적용하여 ‘초등학교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 안심서비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건에 대해 모의의회 과정을 체험하였다. 의장과 의원 역할을 부여 받은 학생들은 조례안을 직접 제안하고 질의하며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조례안 제정 절차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해당 지역구 의원인 유장근(용호초등학교), 박미순(용호초등학교), 송상일(용당초등학교), 이강영

의원(문현초등학교)이 참석하여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을 하였다. 그 외에도 학생들 모두가 의장실에서 의사봉을 쳐보고 기념촬영과 기념품도 받으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 의회 교실에 참석한 학생들은 “의원님들이 알기 쉽게 의회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의회에서 무슨일을 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좋은 경험이 되었다.”, “남구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 파이팅!” “의사봉 치는 게 재밌고 신기했어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국민들의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시지 말고 투명하고 청렴한 정치를 해주세요”, “정말로 비리가 있고 뇌물이 오가나요?” 하는 성숙한 질문을 해 각종 언론매체에서 비치는 안좋은 모습에 궁금증을 토로하기도 했다.

5분 자유발언

“스카이위크 유료화 아직은 시기상조”



박재범 의원
(우암, 김만, 용당동)

저는 오늘 용호동 산 196의 1번지 일원의 오륙도스카이위크와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전담직업 대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륙도 스카이위크는 지난 2013년 10월 18일 개장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0월 기준으로 하루 평균 3,500명, 1주일간 약 2만 500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근거로 하면 한 해 관광객 100만 명이 넘는 남구의 명실상부한 관

광자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남구를 방문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분명하나, 인건비, 유리관 교체비용, 공공요금 등 6억 원이 넘는 예산이 매년 집행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시설관리사업소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스카이위크 유료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남구에 주소를 둔 주민과 공무원, 시설관리사업소 센터현장등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 및 동 주민센터 비치 설문지를 병행해 실시하였고, 질문 내용은 남구민을 제외한 관광객에게 입장 유료화에 대한 찬반 투표였습니다.

그 결과 총 1만 2,526명 중 8,294명(62.4%)이 답변했는데, 찬성 4,329명(52.2%), 반대 3,965(47.8%)라는 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현재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스카이위크 유료화에 대한 조례제정 등의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스카이위크의 유료화를 실시하고 난 후에도 연 평균 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제신문 기사에 “편의시설 부족, 불법주차 심각, 설상가상 오륙도 스카이위크”라는 제목으로 오륙도스카이위크 유료화에 대한 우려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신문의 지적처럼 아직 대만 서비스가 완벽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유료화를 추진하면 방문객 감소와 남구 주민을 포함한 많은 관광객들의 원성을 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스카이위크 유료화 정책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주장하고 싶습니다.